

해외 배낭여행 결과보고서

(여행팀명 : 글로벌 비스코)

I 개 요

- 여행기간 : 2013년 8월 8일 ~ 16일
- 국 가 : 태국, 홍콩
- 견학시설 : 빅토리아피크(홍콩), 왕궁(방콕), 농눅빌리지(파타야) 등
- 팀 인 원 : 4명
- 주요내용
 - 전 세계적 관광지인 홍콩 빅토리아피크의 피크트램 등을 체험하며 우리 공단 시설인 태종대, 금강공원 등 등 각 공원시설에 적용 가능여부 검토
 - 태국의 왕궁, 농눅빌리지 등 문화재 관리실태와 공원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분석.

□ 일 정

- 제 1 일차 : 홍콩 (홍콩섬 관광시설 견학)
- 제 2 일차 : 방콕 (왕궁, 사원, 카오산로드 등 견학)
- 제 3 일차 : 파타야 (황금불상 등, 국가 시설 견학)
- 제 4 일차 : 파타야 (해양스포츠 체험)
- 제 5 일차 : 파타야 (야시장 등 현지 재래시장 체험)
- 제 6 일차 : 파타야 (농눅빌리지, 코끼리쇼 등 관광상품 체험)
- 제 7 일차 : 파타야 (관광 인프라 전반에 관한 토의)
- 제 8 일차 : 홍콩 (야경, 중대형쇼핑센터 등 현지체험)
- 제 9 일차 : 귀국



II 태국 국가개요

- 국 명 : 타이 (thailand)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면 적 : 513,120km²
- 인 구 : 약 67,448,120명
- 민 족 : 타이족 85%
- 종 교 : 불교 94.6%, 이슬람교 4.6%
- 언 어 : 타이어
- 1인당 GDP : 5850\$
- 화폐단위 : 바트(THB)
- 기 후 : 열대몬순기후
- 주요산업 : 관광, 농업
- 병역제도 : 의무병역제



타이 국가 지도



타이 국가 대표사진

III 견학시설

□ 견학시설명 : 에메랄드 사원

- 위치 : 타이의 수도 방콕 Na Phra Lan Rd. Ratanakosin
- 개관년도 : 1792년 라마1세
- 규모 : 전체 면적 218,400 m²
- 개발동기 : 에메랄드사원(Temple of the Emerald Buddha)이라고 불리며 공식 명칭은 왓 프라시랏타나삿사다람(Wat Phra Sri Rattana Satsadaram)이다. 타이에서 가장 훌륭하고 성스러운 사원 중의 하나이다. 다른 사원과는 달리 왕궁에 속해 있는 사원이며, 따라서 승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본존은 높이 75cm, 폭 45cm의 프라깨오라 불리는 에메랄드 불상(재료는 옥)이다. 사원에는 짙은 남색과 오렌지색의 3층 지붕과 벽면의 화려한 모자이크, 번쩍거리는 황금빛 불탑이 있다. 본당의 돌담과 회랑에는 힌두교 신화와 라마키엔 설화를 묘사해 놓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타이 내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신성시 되는 곳이기 때문에 노출이 심한 옷과 반바지, 뒤가 트여진 슬리퍼 등의 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 특징
 - ▷ 왕궁 최대의 볼거리로, 본당 안에 정좌된 에메랄드 불상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라마 1세가 라오스를 정벌했을 때 전리품으로 들여온 이 불상은 나라에 부를 가져다 주는 국왕의 수호신으로 여겨져 신자들에게 끝 없는 참배를 받고 있다. 라오스는 지금도 불상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벽은 하얀 색으로만 채색되어 있는데, 이것은 <라미끼엔>의 라바야나 신화에서 온 풍경이다. 이 사원의 내부에 있는 여러 입상들이 이 이야기에서 그려진 인물과 닮아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5m 크기의 거인인 '약'(yak)이다. 또한 황금 첨탑을 감싸고 있는 원숭이 왕 또한 라마야나의 스토리에서 온 것이다.

▷ 사원의 건축은 1785년 라마 1세가 툰부리에서 방콕으로 천도를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왓 프라깨오의 원래 이름은 왓 빠이아(Wat Pa Yia)로 대나무숲 사원이라는 뜻인데 옛 이름 그대로 사원 구석구석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다른 사원과는 달리 승려가 사는 승당이 없고, 잘 치장된 법당 건축물과 부처 상, 불탑만 존재한다.



IV 결 과

□ 총평(견학소감)

- 출발 전 조사와 다르게 태국은 생각한 만큼 후진국은 아니었음.
차라리 낮은 경제수준 마저도 관광 상품화 하여 여행객들을 모으고 있었다.
- 사원이나 왕궁은 군인들이 철저히 통제 관리하여 공공위엄을 더하였고 유흥가나 시장은 너무나 자유로운 시스템으로 관광객들에게 양면성을 동반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함.
-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콩의 여러 관광 상품들은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감도 적잖아 있었지만 그마저도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아진다.
- 결론적으로 사람이 모이거나 관심을 받는 곳은 어떤 형태로든지 특화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본이 많이 투자되었고 시설이 화려하면 좋다는 일차원적 발상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이나 관광객 등의 need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어진 환경에서의 특수성을 찾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스포츠센터·공원·장사·공연·도로·교량·시장·주차장 분야

- 왕궁 주위의 공원의 경우 휴식년제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특이했음.
- 어느 기간을 정해 시민의 출입을 금하고 잔디 등을 가꾸고 관리하나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하지만 우리공단의 관리 공원도 오염, 훼손도가 심한 곳이라면 파트를 나누어 휴식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임.
- 홍콩의 경우 시장자체를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놓았음
- 낮에는 도로로 이용하고 밤에는 교통통제 후 야시장으로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었음.
- 현대식 건물, 이용객의 편의도 중요 하지만 우리만의 특색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는 것도 관광객 및 고객유치에 도움이 될 듯 함.

□ 친환경시설·에너지효율향상·녹색정책분야 등

- 홍콩 야경을 예로 들면 야경으로 유명한 주위의 고층 건물들의 복도 조명을 어두워지는 순간 점등하여 일률적으로 항상 켜놓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 한다고 함.
- 유지비용이 득이 될지 관광상품이 득이 될지 감가상각을 잘 판단하여 시행하는 제도라 생각함.
- 태국, 홍콩 두 나라의 도로 청결 분야의 특이점은 도로(인도 등)에 재떨이와 쓰레기통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
- 쓰레기나 담배꽂초 버릴 곳을 찾으면 눈에 띄는 장소에 항상 있어서 몰래 길에 버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임
-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길에 휴지통이 없으므로 휴지 등을 아무곳에나 버려 환경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 우리 공단에 적용 하자면 공원의 경우, 시민 보행 지역에 친환경적인 오물 투기수단 등을 만들어 환경개선을 선진시민의식에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듯함.